

권능,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진행된 '2017 만민 기관장 교육'이 전국 및 해외 21개국에서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세 차례의 질문과 당부를 통해 제자들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다.

예비된 영적 장수가 되려면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살펴본다.

“주는 나의 힘이요 도움이시라”

믿음으로 피부암을 치료받은 미국 알라 코즈로바 성도와 응답과 치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황중수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96호 2017년 7월 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행복과 감동이 넘쳤던 '2017 만민 기관장 교육'

'권능'(요 14:12)에 담긴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깨우치다



7개 언어로 동시 통역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깊이 이해함으로써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2017 만민 기관장 교육'이 '권능'이라는 주제 하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주강사로 강원도 흥천군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열렸다.

대강당 다이아몬드 홀을 비롯 10개의 소강당에는 기관장단은 물론 교육을 사모하는 국내외 주의 종과 일꾼, 성도들로 가득 찼다. 대전, 마산, 여수 등 국내의 43개 지교회 외에도 미국, 이스라엘, 케냐,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21개국에서 2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어 총

랑하는 참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째로, 권능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인 '기사'(奇事)와 '표적'에 대해 성경상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수많은 사례를 실례로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다.

둘째로, '권능에 담긴 하나님의 근본 마음'에 대해 가장 좋은 것 즉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려는 선(善)과, 살리고 구원

하시려는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 성경상 사건을 예로 전했다.

셋째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능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음과 온 영을 이루기 위해 권능을 힘입어 벗어 버려야 할 육의 속성 중 대표적인 네 가지 곧 변개함, 간사함, 간음, 이기적인 마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첫째 날 오후에는 교육에 앞서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도착예배 및 성령충만기도회가 있었으며, 둘째 날 오전에는 이희진 목사의 말씀 시간, 셋째 날 오전에는 오션월드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한편, 교육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에 간증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이번 교육의 주제인 '권능'은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인간 경작의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비밀병기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세상의 기술이나 과학,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러한 권능에는 단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바로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인 선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더 나아가 그 선과 사랑을 닮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과 감동이 넘쳤던 이번 교육을 통해 권능을 행하는 주의 종과 일꾼들이 많이 나와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힘차게 이뤄가길 기대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 내 어린 양을 먹이라
... 내 양을 치라
...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5~17)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밤새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알려주시며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주님께서는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신 후 수제자 베드로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의 영적 의미

15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디”라고 대답합니다.

비록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마 22:37, 10:37, 19:29).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주님께서도 구세주의 사명

을 감당하시기 위해 고난과 멸시, 천대를 감수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자는 어린 양을 초신자, 새신자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요 1:29 ; 계 5:6~8).

그러면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12장에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가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고기는 먹고 피를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예시의 말씀이지요.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에 바른 것처럼 신약에서는 어린 양인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요 6:53). 곧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요 1:14 ; 요일 1:7).

따라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복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의미이지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 확실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어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의 영적 의미

16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니 베드로가 동일하게 “주여 그러하외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고 당부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을 잘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게 해 줍니다. 또한 양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고,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 옆길로 새려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요(삼상 17:34~35).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를 종종 ‘양’으로 비유합니다(사 53:6 ; 막 6:34). 이처럼 영적으로 양 떼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은 성도들이 참 자녀로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말씀의 풀을 꾸준히 먹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에서 벗어나 혹여 시험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고,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도와주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양 무리를 치는 자들에게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3) 당부하셨습니다. 즉 모든 분야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 양 떼보다 먼저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온 영으로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심방하며 진리의 풀을 잘 먹여서 성도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해 주어야 하지요.

이는 내 자신이나 가족보다 양 떼의 형편을 먼저 살피고 돌아보며 하늘의 상급됨을 바라봄으로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과 의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벧전 5:4).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의 영적 의미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

니 베드로가 근심하며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고 진리의 풀을 양식 삼는 만큼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악에 악이 더해져 한 번 믿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영혼들, 심령이 심히 상하여 갈급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생명력이 시들해져 힘을 잃고 파리해져 가기도 하지요. 이런 영혼들이라 해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진리의 풀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혼이라면 어찌하든 살 길을 열어 주시고자 하십니다(마 12:20). ‘상한 갈대’란 영적으로 ‘세상의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님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마음이 악으로 심하게 물들어서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들도 다시 돌아켜서 구원의 테두리 안에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영혼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살려내 고자 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양 떼를 인도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주님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영적 장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마지막 때 영적 장수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항목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영적 장수가 필요하다(딤후 2:4 ; 눅 10:2). 죄악으로 관영한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장수가 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살펴본다.

point 01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야 한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며 마음에 조금이라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정녕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안다면 죄가 조금만 있어도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헐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외칠 수 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힘을 북돋워 줌으로 영적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적인 힘을 잃은 영혼이 있다면 죄에 대해 분명히 깨우쳐 주되, 죄에서 돌아켜

빛 가운데 나와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스스로 마음을 돌아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죄에서 돌아켜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이다(엡 3:12).

만일 죄를 깨우쳐 주는 것으로 그친다면, 믿음이 여린 영혼들은 회개하고 돌아가기보다 낙심하고 절망해 실족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꺾져가는 심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돌봐 주어야 한다. 이로써 영적인 질서 가운데 서로 화평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다.

point 02

자신의 사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사명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다.

천국에는 아름다운 처소뿐 아니라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들로 가득하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한 대로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각 사람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계 22:12).

만일 이 땅에서 능히 가질 수 있고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느라 취하지 않았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갚아 주신다. 하늘의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한 밝히 알면 알수록, 세상 것들이 헛되고 쓸모없게 느껴지니 세상 욕심이 없어지고 세상 것들이 끊

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어떠한 것도 즐겁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다(요일 2:15).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벧 3:14) 고백했듯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 땀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벧 2:13). 영원하고 참된 것에 마음을 두고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아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땀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영적 장수가 될 수 있다.

point 03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은 조금도 사랑치 않으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랑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은 물론 죄인들도 온전히 사랑하셨기에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자신의 희생과 죽음으로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바라보시며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벧 1:21)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마음이 된다면 세상에 나가 외칠 때에 어떤 것이 부딪쳐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가운데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장수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를 보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방이 되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물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떠한 곳이라도 복음을 들고 갔던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도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행 1:8),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는 영적 장수로 나와 마지막 때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야 할 것이다.



7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 7. 9~7. 15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 천국 1-5
- 생명의 씨 3-4
- 공간과 차원 1
- 창세기 강해 22-28
- 요한일서 강해 6-10
- 위로부터 난 지혜 5-9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2-4

GCN TV 설교

- 육과 영 1-4 (이수진 목사)
- 자기 발견 1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27 (이희선 목사)
- 용기 강해 26 (신동초 목사)
- 시내산 언약 (정규명 목사)
- 진리의 자유함 (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6)
- 권능 스페셜 4
- 창조와 과학 21
- 모두 드려요 57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0
- 옛날 옛적에 (시즈) 3
- 마지막 때 14
- English 4
- 내 마음의 천양 37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6
- 독일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9

전국 어디서나 **alleg tv 882번** | 세계 어디서나 **RokuTV**

“피부암을 치료받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알라 코즈로바 성도
(80세, 뉴욕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만민교회)



기도받기 전 ▶
병리조직검사 결과
피부암으로 진단.

2011년 11월 말, 저는 신문에서 교회 집회 광고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치료될 것인데, 이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죽음에서 살린 유명한 부흥강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지요.

당시 천식, 골관절염, 축농증, 고혈압, 우울증, 불면증, 말초정맥문제 등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많은 약을 복용하던 저는 기대와 설렘으로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강사 정구영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마쳐진 뒤 손수건 기도를 받는 순간, 몸이 아주 가볍고 고통이 한결 줄어들었지요.

집회 후 저는 ‘뉴욕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만민교회’ 성도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빌라델비아교회처럼 하나님께 사랑 받는 특별한 교회 같았지요. 이후 성경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게 된 저

는 러시아어로 발간된 당회장님의 모든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7월, 저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층에 있는 대여섯 가구가 큰 피해를 입고 한 명이 사망하였는데, 저희 집은 목자의 공간 안에서 온전히 지킴을 받았지요. 할렐루야!

그해 9월, 왼쪽 가슴과 목 사이에 종양이 생겨 병원 진단 결과, 피부암 초기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당회장님 기도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자 점점 몸이 좋아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며 수술하지 않고 믿

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아들이 강권해 어쩔 수 없이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8일(주일), 저는 담임 비탈리 피쉬버그 목사님에게 화요일에 있을 수술을 위해 손수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환부가 너무나 뜨겁고 전기가 흐르는 듯 찢릿찢릿했지요. 견디기 쉽지 않을 만큼의 매우 강한 열기였습니다.

1월 10일(화), 의사는 수술에 앞서 암세포 부위를 확인하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네요?”라는 뜻밖의 말을 하였고, 재검 후에는 “정말 완전히 사라졌어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의사에게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된 것이라고 말했고, “아무런 시술도 필요 없다.”는 의사의 말에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성경이 좋은 친구가 되어 건강하게 살아가니 평안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목 디스크와 돌발성난청을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았습니다”

황중수 집사 (56세, 1대대 1교구)



2017년 3월, 저는 목이 뻣뻣하게 굳어 고개를 좌우상하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목을 돌리려고 하면 극심한 통증으로 견딜 수 없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 집까지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4월 9일(주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고자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 손바닥에 “집 문제 해결, 목디스크 치료받기 원합니다.”라고 적고 믿음으로 악수를 하였지요. 그러자 통증이 사라졌고, 다음날에는 목이 가볍고 편안했으며 좌우상하로 천천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응답을 위해 남·여선교회 헌신예배를 끼니 금식으로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변화되자 노력하였지요. 그러던 중 집을 저렴한 가격으로 험통하게 구하는 축복

을 받았습니다. 또 5월 14일, 남·여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린 뒤에는 목디스크를 온전히 치료받아 움직이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게는 또 하나 응답받아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5월 초부터 왼쪽 귀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돌발성난청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조용히 웃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기 일췌였습니다.

6월 2일(금),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음에도 더욱 변화되지 못한 제 모습이 한없이 죄송하게 느껴졌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 뒤에 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았는데, 갑자기 왼쪽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월 4일(주일) 예배 때 환자기도를 받고는 완전히 정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저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겼습니다. 각종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응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경추 5~6번 디스크로 자라 목이 심했으나, 이제는 온전히 치료받아 목을 움직이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3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층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사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곡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사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딩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